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 신송전 시스템 개발 추진

전력기자체 기술개발 기획위 출범
70kV급 운영기술 등 시험설비 구축
송·배전망 시스템 비효율성 극복
“안정성 검증 등 글로벌 시장 선도”

전남도가 70kV급 신송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주시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체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기존의 송·배전망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압 기준이다. 기존 154kV 송전망과 22.9kV 배전망은 각각 100MW 이상

의 대용량 전력 송전과 20MW이하의 소규모 전력 배전에 적합하다. 자주 사용되는 중간 전력 용량의 송·배전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40MW~100MW 수준의 전력 송전에는 70kV급 신송전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30년간 60MW의 전력을 10km 거리에 송전할 경우, 70kV급의 총비용은 199억원으로 154kV의 244억원과 22.9kV의 227억원보다 경제적이다.

전남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체의 개발과 기술 안정성 검증을 실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70kV급 복합 전력기자체 및 운

영기술 개발, 단락시험, 내진시험, 고압시험 등 80여 종의 시험설비 구축이 포함된다.

이날 출범한 기획위원회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KTC, KETI,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대학교, LS일렉트릭, 인텍전기전자 등 산·학·연·관 12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70kV급 전력기자체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산업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기획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안상현 나주시장은 “이번 70kV 신송전 프로젝트는 기존 송전시스템 대비 에

너지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나주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창구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70kV 신송전 시스템은 국가 전력 인프라의 미래를 여는 차세대 에너지 고속도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도의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직류(DC)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66kV, 69kV의 중간전압 송전체계를 이미 운영중이다. 한전도 차세대 직류 송배전체계의 기준

전압을 중간전압직류(MVDC) 70kV(±35kV)로 설정했다. 이를 교류로 변환하면 70kV가 돼 교류와 직류 간 송배전이 용이하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 시장규모는 2032년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에서 12개 이상의 70kV 신송전 선로를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약 7000억원 규모의 70kV급 전력기자체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최고 숙련 기술인, ‘전남도 명장’ 찾습니다”

11일까지 기계설비 등 38개 분야

전남도는 지역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인을 찾아 명장으로 대우하기 위해 2024년 전남도 명장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명장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을 발전시키며 전수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계설계, 선박설계, 전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등 38개 분야에서 연간 5명 이내(분야별 2명)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지원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전남에 5년 이상 주민등록 중이며 도내 산업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으며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한 기술인 등이다.

전남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초빙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명장 심의위원회의 3차 면접심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전남도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연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서는 전남도 동부청사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중소벤처기업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 지정

13개 언어권 의료 통역활동가 지원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을 지정했다.

1일 광주시는 의사소통 장벽, 서비스 불만족,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진료 및 합리적 비용을 제공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20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정된 기관은 △밸런스의원 △첨단우

리병원 △사랑샘병원 △신가병원 △파랑새안과의원 △광산수원미래아동병원 △한사랑병원 △행복을주는가정의학과의원 △아이안과의원 △광주센트럴병원 △밝은안과21병원 △더블유여성병원 △서광병원 △진요양병원 △명인치과병원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신세계안과의원 △동명병원이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친화병원 현판·지정서 제공 △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한 의료기관 홍보 △2024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비 일부 지원 연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13개 언어권 의료 통역 활동가 무료 파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송정역 미디어아트 ‘빛의 관문’ 운영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박병구 광산구청장,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이지위드, 미디어아트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은 광주의 첫 관문인 송정역 앞 지하철 5번 출구 벽면에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해 광주를 방문

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다. KTX와 지하철 운영시간과 시민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콘텐츠 관리는 매체(시설물)부분은 광주교통공사에서, 발광다이오드(LED)와 콘텐츠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4권역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지난달 30일 남구 사직동에서 내빈들과 ‘사직골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시, 내년 시민참여예산사업 62건 선정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 등
의회 심의 거쳐 12월 최종 확정

‘1·3세대 전문문화교실 운영’,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설’,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등 62건이 내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정참여형·청년참여형 18건(54억4400만원), 지역참여형·동단위계획형 44건(18억3000만원) 등 총 62건(73억원)의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시정참여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은 △1·3세대 전문문화교실 운영(6300만원) △다회용기 컵(텀블러) 이용 지원금(2000만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 신설(3000만원) △반려견 목줄 거

치대 설치(5000만원) △5·18민주화운동 샌드아트 콘텐츠제작(5000만원) △광주청년 이사비 지원사업(5억원) 등 18건이다.

‘지역참여형·동단위 계획형’ 제안사업은 △푸른길공원 화단 정비(5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5000만원) △노후화된 육교 안전 보강(5000만원) △비아동 어린이테마공원 정비(4000만원) △분토마을 금단동 입구 석축 보강 공사(5000만원) 등 44건이다.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광주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확정 결과는 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광주시는 지난해 추진 완료한 우수사업 5건도 선정했다.

시정참여형은 △재난예경보체계 강화 시스템 구축(843명, 27.1%) △시민이 걷고 싶은 가로수길 만들기(813명, 26.1%)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684명, 22%)이다. 지역참여형은 △사회생활 뉴비 프로젝트! 어서와 처음이지?(570명, 18.3%) △둘러보며 걷기 좋은 학동 천변 이음산책길 정비(546명, 17.6%)이다. 사회생활 뉴비 프로젝트란 대학 협업으로 청년 등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윈스톱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 이들 선정된 완료 우수사업은 올해말 개최예정인 공감토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온힘’

신규·관외자 등 7200여 농가 점검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 검증 강화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장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최소 3년부터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